

# 中央藥大 同門會報

2003. 봄호 (제12호)

The Alumni News of th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 CONTENTS

- 시론 / 국민건강의 파수군 · 3
- 프로필 / 동기회장단 · 4
- 동문회소식 / 동문회 임원진 박명수총장과 면담, 실행위원회의 · 6
  - 동문제약사 및 관련기업대표회의 · 7
  - 여동문회 실행위원회의, 여동문회의 · 7
  - 회장단회의, 감사회의, 고문단회의 · 8
- 지부별소식/평택지부 / 약사들의 '중앙'이 될 때까지 · 9
  - 관악지부/ 모교 발전의 견인차가 되기를... · 10
- 여동문회소식 / 약국 인테리어, 제 손안에 있습니다. · 12
- 동기회동정/30회 / 입학 20주년 사은의 밤 프롤로그... · 13
  - 입학 20주년 사은회 밤을 마치며... · 14
- 별난동문이야기 / 잃어버린 마이다스의 꿈, 그러나 신화는 계속된다 · 16
- 약국도움이야기 / 기본에 충실한 것이 성공의 지름길 · 19
- 기행문 / 꿈속의武陵桃源, 張家界 · 20
- 만평 / 전쟁... 그리고 평화? · 23
- 회원동정 · 24
- 장학금수여식 · 25
- 학교소식 / 6000 동문들의 Vision, 신축약학관 조감도 · 26
- 동문기금 / 발전기금 조성 내역 · 28
- 편집후기 · 30

## 국민건강의 파숫군



박 영 규  
(5회, 본회감사)

이천년대의 화려한 막을 연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훌쩍 지나갔다. 유영후 회장을 중심으로 태동한 제13대 약학대학 동문회는 그 시작부터 의약분업이라는 새 제도의 시행으로 어려웠던 동문들에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는 Vision을 제시했고, 역시 3년간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동문회의 중흥에 건인차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

2000년 5월 총회를 개최한지 불과 3개월만에 동문회보를 창간하여 이번까지 12호를 한번도 거르지 않고 제작한데 대하여는 황공용 편집위원장과 함께 박수를 받기에 마땅하며, 이어 2001년 2월에는 한석원(8회) 동문의 대한약사회장 당선에 동문회가 큰 역할을 수행했는가 하면, 2002년에는 6천여 동문의 회원명부를 발간하여 동문들에게 소식의 장을 열어주어 메달라가는 동문 약국과 동문 약사들에게 윤희유의 역할을 한 것이다.

이어서 학교의 최영욱(24회) 학장과 시작한 약학대학 신축을 위한 발전기금 모금사업은 모교를 떠나서 오랫동안 잊어왔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이라는 동문들의 회귀본능을 일깨우기에 충분했다.

5대 이상수 회장시절 총무로 동문회에 발을 들여놓은 후 30여년, 오랜길을 달려온 필자는 이제 3년의 감사를 마치게 되었다. 특히 이번 회기를 마감하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 동문회에 일반회비를 정기적으로 내는 회원이 금년회기만 해도 1400여명이나 되었다는데 감격을 금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필자의 동문회 임원시절 동안 재정의 어려움으로 동문제약사들의 도움을 받곤했던 때가 주마등처럼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들은 어깨를 끈게 펴고 국민건강의 파숫군의 역할을 당당히 앞장서서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게 되었다. 임기를 마치는 제13대 동문회의 유영후 회장 이하 임원들에게 선배로서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이제 우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들은 어깨를 끈게 펴고 국민건강의 파숫군의 역할을 당당히 앞장서서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게 되었다. 임기를 마치는 제13대 동문회의 유영후 회장 이하 임원들에게 선배로서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 동기회장단



홍 홍 만 (1회)



고 두 혼 (2회)



노 인 배 (3회)



천 홍 기 (4회)



김 상 오 (5회)



임 성 기 (6회)



정 재 일 (7회)



임 상 목 (8회)



김 의 섭 (9회)



박 호 일 (10회)



정 덕 호 (11회)



노 덕 재 (12회)



김 중 성 (13회)



엄 태 향 (14회)



안준택 (15회)



최광식 (16회)



양희익 (17회)



정명진 (18회)



김경오 (19회)



김현태 (20회)



김두수 (21회)



최광훈 (22회)



박종화 (23회)



김승재 (24회)



이내홍 (25회)



조병일 (26회)



이창오 (27회)



안희규 (28회)



이준 (29회)



김광식 (30회)



## 동문회 임원진 박명수 총장과 면담

지난 1월 28일 동문회 임원진이 박명수 총장을 만나 약학대학 발전을 위한 약학관 신축에 관한 대학측의 설명을 듣고, 동문회가 기금을 마련하여 늦어도 2005년 하반기에는 기공식을 할 수 있도록 총장에게 요구했다.

이날 동문회에서는 유영후 회장을 비롯 강옥희 여동문회장, 서국진, 윤대봉 부회장 및 총무가 참석했고, 대학측에서는 박명수 총장과 윤종선 시설관리과장이 배석했다.

이날 동문회 유영후 회장은 약학대학 동문회가 약학관 건립을 위해 기금 20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학교측도 빠른 시일내에 약학관 신축 청사진을 제시하고 건축을 위한 재정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와 아울러 약대교육의 내실화와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약학대학 구조 개편을 통해 21세기에 걸맞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부탁했다.

아울러 중앙대학교 부속병원의 약제부장은 동문약사로 보임함으로써 중앙대 약대와 의대의 상호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 실행위원회의

▲일 시 : 2월 20일 2시

▲참석자 : 유영후 회장, 최영욱 학장, 이규진, 황공용, 황완균, 천영진

▲안 건

1.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개교 50주년 기념행사 준비의견
2. 기타 토의사항





## 동문제약사 및 관련기업대표회의

- ▲ 일시 : 2월 21일(금) 오후 6시
- ▲ 장소 : 팔래스호텔 중식당
- ▲ 참석 : 유영후회장, 서국진총무, 천홍기, 임완호, 임성기, 신완균, 박호일, 이성우, 정도언, 강명채, 허영, 한만영, 조순현
- ▲ 안건 : 친목도모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발전의 건



## 여동문회 실행위원회의 고문단, 감사단, 자문위원회의

- ▲ 일시 : 3월 19일 동문회관 12시
- ▲ 참석 : 강옥희, 정덕화, 김석자, 우정희, 김경희, 박숙자, 문옥자, 김연희, 박찬희, 김미자
- ▲ 안건
  1. 2003년도 정기총회의 건
  2. 여동문회 장학기금의 건
  3. 기타 토의사항



## 여동문회의

- ▲ 일시 : 4월 2일 동문회관
- ▲ 참석 : 강옥희, 김석자, 신정숙, 박숙자, 최춘자, 정조원, 박찬희, 이경옥
- ▲ 안건
  1. 2003년 정기총회의 건
  2. 여동문회 장학기금의 건
  3. 기타 토의사항



## 회장단회의

- ▲ 일시 : 4월 19일(토) 오후 6시
- ▲ 장소 : 동문회관
- ▲ 안건
  1. 2002년도 결산 및 2003년도 예산안 심의건
  2. 공로패 감사패수여자선정의 건
  3. 모교 약학관신축계획 사항보고
  4. 2003년도 정기총회의 건(날짜, 장소)
  5. 기타 토의사항



## 감사회의

- ▲ 일시 : 4월 19일(토) 오후 4시
- ▲ 장소 : 동문회관
- ▲ 참석 : 유영후 회장,  
박영규 감사,  
홍병석 감사



## 고문단회의

- ▲ 일시 : 4월 26일(토) 오후 6시
- ▲ 장소 : 동문회관
- ▲ 참석 : 유영후 회장, 김기홍,  
오세형, 최종묵, 임완호
- ▲ 안건
  1. 약학대학 및 동문회 발전의 건
  2. 기타 토의사항



## 약사들의 '중앙' 이 될 때까지

앞으로도 우리 평택동문회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명예를 높이고  
봉사에 앞장서는 약사들의 '중앙' 이 될 것을 다짐한다.



황 태 선  
(9회, 지부회장)

평택. 서울서는 2시간 남짓밖에 안 되는 거리지만 본 동문회와는 이틀도 더 되는 거리에 있는 것 같은 곳이 평택지부다. 그래서 일년에 한번 열리는 동문회 Home-Coming Day에 가야 동문 선후배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평택동문들의 마음이다. 그러나 우리 평택동문들의 마음은 언제나 만나고 있는 것처럼 따뜻하다.

지난 3월21일 설악가든에서의 월례회의에서는 누구할 것 없이 전원 찬성으로 5월의 전진단합대회를 하기로 하고, 또 이제까지 5차례나 그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6번째로 약대 교수 전원과 약대 동문회장단을 평택 아산만으로 초청하여 교수님들과 동문회장단의 노고에 보답기로 결의한 바 있다.

사실 이러한 일은 매우 실행하기 힘든 것이지만 평택에 있는 우리 동문들의 마음이 얼마나 동문사랑과 학교사랑을 향해 열려있는가를 알게해 준다.

평택동문회는 1회 동문부터 41회까지 50여명의 회원들이 선후배로서 서로 아끼고 도움을 주고 있다. 시의원 역임하시고 국회의원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서화택 선배(2회)를

중심으로 필자가 지부장으로, 또 4년째 총무로 숙고하고 있는 원주현 동문(30회)의 수고로 평택지부가 동문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부가 되기를 늘 희망하고 있다.

그런 동문들의 마음은 지난 1월 24일 있었던 동문회장, 학장과의 만남에서도 이어져 학교발전기금 2,600만원이 당일 약속된 것만 하더라도 알 수 있다.

앞으로도 우리 평택동문회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명예를 높이고 봉사에 앞장서는 약사들의 '중앙' 이 될 것을 다짐한다.



## 모교 발전의 견인차가 되기를..



문재빈  
(13회, 지부회장)

이젠 누가 뭐라 해도 천지간이 온통 꽃천지이다. 진달래는 온 산을 붉게 물들여 놓았고 개나리는 담장마다 노란 꽃을 피워 물고 봄별을 찍고 있다. 흰 꽃송이를 가지마다 가득 피워 올린 백목련 나무 아래를 지날 때면 나도 모르게 그리운 이름들이 하나 둘씩 떠오르는 걸 보면 이미 봄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것이 분명하다. 눈부신 게 어디 꽃뿐이겠는가. 연록의 너울이라도 쓴듯 출렁이는 수양버들의 낭창거리는 몸짓이며 툭툭 불거져 오른 뱃나무 가지를 보면 금새라도 봄의 한 가운데로 풍덩하고 빠져 버릴 것만 같은 요즈음이다.

그러나 마냥 봄향기에 취해 있을 만큼 게으름이나 피우며 여유를 즐길만한 국내외 정세는 아니다. 미국의 패권주의와 석유 탈취를 위한 전쟁이 지구 저편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어 울부짖는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신음소리도 들리고 있고, 전세계적으로는 반전운동과 시위가 연일 뉴스와 신문을 장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상황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여서 경기는 침체해 있고 정치권에서 부는 특검제 바람과 북한 핵문제 등 해결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약계의 현실도 국내외 정세와 다를 게 없다.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에 온 힘을 쏟아야 함은 물론이고 신임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성분명 처방을 단순히 앉아서 지켜볼 수 만은 없는 불안감이 있다. 또한 올 연말에 있을 신임 대한약

사회 회장 선거가 있어서 초미의 관심을 사고 있다.

관악지부는 현재 36명의 동문이 있으며, 어찌 보면 평균연령이 50대를 넘긴 노령화 된 동문회 지부이다. 그렇지만 그만큼 오랜 세월을 함께 한 동문들이라는 뜻도 되어 동문 간에 다정한 친구처럼 우애가 좋고 단합이 잘 될 뿐 아니라 언제나 즐겁게 지내고 있다. 본인이 현재 관악지부 동문회장을 맡아 동문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대한약사회의 또 다른 부회장인 김종열(14회) 동문이 관악구 분회장을 2회 역임했으며, 앞으로도 관악구 동문회를 이끌어 나갈 일꾼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외 현재 관악구 분회장을 맡고 있는 박석동(15회) 동문이 있고, 권혁세(5회) 동문을 비롯한 고수창(7회) 동문, 김종란(7회) 동문, 서진일(8회) 동문, 허정자(8회) 동문, 김옥임(9회) 동문 등 원로 선배님들이 있어서 무엇보다 마음 든든하다. 김성순(11회) 동문을 비롯한 문혜성(12회) 동문, 오춘택(12회) 직전 지부동문회장, 이광호(12회)동문, 주성균(12회) 동문, 이종례(12회) 동문으로 구성된 막강 12회 5인방이 있으며, 정만기(13회) 동문과 설은규(13회) 동문, 문재빈 동문으로 구성된 13회와 김종렬(14회) 동문, 김경수(14회) 동문, 조병화(14회) 동문의 14회도 12회 못지않다. 그외 16회 박기회 동문, 이상규 동문, 신정옥 동문이 있고, 19회인 마

매년 연초와 연말에 정기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술 한 잔 생각날 때나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수시로 모임을 갖고 있는 등, 밤을 세우는 모임은 선배들의 넉넉한 배려와 후배 사랑이 있고 후배들의 선배들에 대한 존경심으로 항상 웃음소리와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늘 연출하곤 한다.



당발 윤건섭 동문 등이 있어 이들 중진들이 관악지부의 핵심을 이루고 동문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

그 외에도 송진섭 동문, 백명규 동문, 이희정 동문, 이선덕 동문, 김영호 동문, 안희영 동문, 이송락 동문, 박운철 동문, 김덕수 동문 등이 그 뒤를 받치고 있다.

관악지부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60~70명이나 되는 동문들이 모여 있었다. 지금은 의약분업의 여파도 있고 해서 절반 가량 동문 수가 줄어들긴 했어도 여전히 관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약사회 관악지부 분회장을 18년 동안 연속해서 유지하고 있으며, 대한약사회 집행부에 부회장과 위원장이 3명이 활동하고 있는 등 왕성한 활동력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해 가을에 열렸던 모교의 날에서는 비록 연합팀이긴 하지만 다른 지부보다 평균 연령이 10살 이상 많음에도 불구하고 축구 준우승이라는 위업을 달성

하기도 해 관악지부의 저력을 많은 타 지부에게 보여준 바도 있다.

매년 연초와 연말에 정기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술 한 잔 생각날 때나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수시로 모임을 갖고 있는

등, 밤을 세우는 모임은 선배들의 넉넉한 배려와 후배 사랑이 있고 후배들의 선배들에 대한 존경심으로 항상 웃음소리와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늘 연출하곤 한다.

앞으로는 관악지부 동문회가 지부뿐만 아니라 총동문회와 모교의 발전의 견인차가 되기를 다짐해 본다





김 미 혜  
(33회, 숨디자인)

## 약국 인테리어, 제 손안에 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을 직업으로 하다 보니 요즘은 직업상 여러 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한결같이 나에게 궁금해 하는 점은 약대를 나온 사람이 어떻게 또 인테리어 공부를 다시 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만큼 그것이 그 당시에 나에게서는 어렵지도 대단하지도 않은 일이었다.

나에게는 오히려 약대를 다니고, 졸업을 하고, 약사면허증을 갖게 된 일이 더욱 대단한 일일 만큼 약대를 다니는 것이 힘이 들었다.

어릴 적부터 뭔가 만들고, 꾸미는 일을 좋아하고 소질이 있었던 것 같다.

어쩌다 보니 약대를 들어갔고, 내가 원하는 길을 늦게 발견했지만 약대 졸업 후에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공부도, 직업도 갖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약대 4년을 보내고 졸업 후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한 것은 어쩌면 더 당연한 일이었다.

파리에서 실내 디자인을 공부하면서 집과 학교를 오고 가는 길에서 본 약국들은 나를 감동시켰었다. 그 당시 (80년대 말) 우리나라의 약국들은 거의 다 천편일률적이고 열악한 환경이었다. 파리에 오기 전 약국에서 1년 정도 관리약사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던 나는 파리의 약국들을 보면서 이런 약국에서라면 한번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깨끗하고 세련되고 품목도 다양하고, 우리 약국들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었다.

한국에 돌아와 파리에서 공부한 전공을 살려 그 계통의 일만을 하다가 우리 약업계가 의약분

업이라는 대대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자 나도 약국디자인에 비로소 관심을 갖게 되었다. 파리에서 보았던 약국들의 인상과 길진 않지만 약국에서 일해본 경험을 살려서 나름대로 조금은 앞서가는 약국을 디자인 할려고 노력하고 있다.

디자인과 실용성을 다같이 만족시켜야 하는 약국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어떻게 하면 좀더 다른 장점들 보다 돋보이게 하여 그곳에 몸담고 있는 약사님들의 위상도 상승하고 매출도 증대 될 수 있을지 약국에 많은 애정을 갖고 노력중이다.

약국디자인을 하면서 희망이 있다면 내가 디자인한 약국을 사람들이 보면서 내가 파리의 약국을 보면서 받았던 그런 신선한 감동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 약국이라면 내가 그랬던 것 처럼 지나가다 멈춰서서 들여다보고, 괜히 들어가 보고싶고, 그렇게 매출신장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다.

요즘 어느 때보다 약사님들을 많이 만나고 이야기할 기회가 많은데 생각보다 우리 동문들을 만날 기회는 많지가 않다.

내가 학교를 열심히 다니지 않아 친구가 몇 명 안되었는데, 지금은 그 친구들마저도 모두 미국에 살고있어 학교소식이나 동문들 소식은 거의 들을 기회가 없다.

마침 여동문화 회장님께서 먼저 연락을 주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더 많은 동창이나 선배 후배님들을 만나 학창시절 이야기나 동문들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



김 광 식  
(30회, 동기회장)

## 입학 20주년 사은의 밤 프롤로그...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니?"  
"글세!"  
"오늘이 부활절이야. 왜 오늘로 잡았어?"  
"나야 그런 줄 알았남!"

2003년 3월 20일.

며칠째 비가 오락가락하고 날도 흐리더니 급기야 오후부터 비가 내린다.

젊을 때야 봄비가 연인과 우산을 같이 쓰고 꽃을 밟으며 싱그러움을 만끽하던 낭만이었지만, 40줄에 접어들니 추적추적 여간 귀찮은 것이 아니다. 더구나 모임이 있는 날인데.

친구들과 열심히 뒀 덕에 준비는 다 된듯한데!

'진인사 대천명'

하늘이 도와 줄 것인지!

착잡하게 시간을 기다리는데 전화가 울린다. 한교수님이시다.

"김회장!"

"미안한데, 오늘 일이 있어 못 가겠네!"

"예, 알겠습니다. 전화 감사합니다."

웃으며 전화를 접지만 서운함은 어쩔 수 없다.

"홍교수야!"

"네, 교수님!"

같은 말씀이시다.

어째 불안하다.

그러나 거리의 라일락 향기에 걱정을 접는다.

미리 호텔에 도착하여 김총무, 이부회장, 천사회, S제약 김군, 그리고 예쁜 동기생 윤(왜 예쁜지는 아는 사람은 다 알!)과 준비사항 체크하고 손님 맞을 채비를 한다. 천사회는 매우 꼼꼼하다. 다들 자기 역할을 잘한다.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손님 수는 예정보다 적다.

'내 잔치가 아니고 82학번의 잔치인데.'

'심부름꾼 노릇 열심히 했는데.'

'서운하다.....'

지금은 다 끝나고 훌가분한 월요일이다.

가장 기억나는 것은 손의동 교수님의 말씀이다.

"야, 82학번이 짱이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맛에 나서서 육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대 약대 선후배님'

메리어트호텔에 올려 퍼진 건배 소리와 노래 소리에 놀라시진 않으셨는지요! 다음에도 우리는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면을 빌어 혜수, 석일이, 진우, 장무, 영희, 병태, 세영이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일하면서 더 가까워진 것 같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동기 약사님들! 사랑한다.

경조사 연락해!

그리고,  
부킹되면 연락해!

입학 20주년 사은의 밤  
중앙약대 82학번 동기회



# 입학 20주년 사은회 밤을 마치며...



김혜수  
(30회, 식약청 약품규격과)

우리는 모교 은사님을 모시는 사은회 밤을 위해서 2002년 11월초에 동기모임을 가졌다. 그 이유는 단 한가지. 우리 동기는 화끈하고 훌륭하고 화려한(?) 행사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회장 김광식을 비롯하여 10명의 임원진을 뽑았으니, 감투 좋아하는 우리사회 관습상 행사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서로 가지며 준비했다.

2003년 4월 20일 일요일 오후 5시. 서울 강남 메리어트 호텔 미팅룸에서. 드디어 졸업후 처음 만나는 친구들,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 공부 잘했던 여자 동기들, 결혼은 잘하고 애들은 몇이나 두었을까. 원로 교수님들은 건강하시고, 모두 오실 수 있을까. 두려움, 그리움과 반가움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은사님으로 우리 동기들을 가르쳐 주셨던 김종갑 교수님, 손동헌교수님, 김일혁교수님, 김기호교수님,

허인회교수님, 임철부교수님, 김창종교수님, 김미영 교수님이 참석해 주셨으며, 재직교수님으로 최영욱 학장님을 비롯하여 손의동교수님, 이도익교수님, 이민원교수님, 심상수교수님, 김하형교수님, 천영진교수님이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셨다.

천세영 동기의 사회로 시작된 입학 20주년 기념 사은회 밤 행사는 특히 김광식 회장의 인사말 도중에 동기 모두가 일어나서 모교 은사님께 가르쳐 주신 덕분에 약사 사회의 주춧돌이 되어 열심히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에 대해 "경례" 할 때에는 모두들 가슴이 뭉클했으리라 생각한다. 이어 김종갑 교수님의 격려사에서는 사은회 행사는 "선생이 베풀어 준 것에 대해 보답을 받는 자리"인데, 본인은 "우리에게 아무 것도 베풀 것이 없어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본인을 "1980년대로 회상(回想)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준 제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셨다. 아울러 유영후 동창회장님의 축사에서 1982학번 여러분들이 마련한 사은회 밤은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모교의 자랑이자 은사님을 생각하는 제자들의 도리"라면서 자리를 훌륭하게 준비한 회장을 비롯한 후배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하셨다.

교수님을 대표하여 손동헌교수님에게 선물 증정이 있었고, 손교수님은 사회가 어렵지만 "Don't give up" 하시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 할것을 부탁하셨다. 이어 장학금 증정식이 있었으며, 1983학번 동기회장인 이성표군에게 명예스러운 청룡상 인도식이 있었다. 이어 김일혁 교수님의 "386세대로서



약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약사회의 중추가 되길 바란다"면서 건배제의로 즐거운 식사 시간과 여흥의 시간을 가졌다.

우리 1982년에 입학한 동기들은 졸업정원제라는 입시제도하에 정원의 30%인 36명을 더 뽑아 총 156명이 입학하게 되었다. 우리 82학번은 중앙대 약대에 역사상 기록을 남길만 한 큰 변화를 몰고왔다. 1회부터 29회 입학생은 약 70%가 남학생이었다고 했지만, 우리 학번때 역전이 되어 70%가 여자 동기였으며, 대부분이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잠시 입학전의 일로 돌아가 보았다. 1982년 1월 초 입학 면접시험을 보기 위해 정경대 건물에 모여서 다들 추위와 긴장과 초조함에 벌벌 떨고 있을때, 이광표 교수님이 오늘 이곳에 남·북한 정상이 모두 모였다고 말씀하셨다. 모두들 어리둥절하였지만, 입학 면접을 앞둔 수험생이 교수님 말 한마디를 놓칠리 없었다. 순간 이 교수님이 대한민국 대통령 "전두환"하고 부르자 순간 모두들 웃었다. 그러자 누군가 "네"하고 대답을 하지 않는가. 모두들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에, 이 교수님 가라사대 마침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시려고 멀리 북한에서 "김정일" 동지가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김정일"하고 부르자 "네"하고 대답하는 것 아닌가. 그날 면접을 앞두고 합격한 동기들은 물론 운 없게 떨어진 이름모를 친구들도 파안대소하였다. 우리 82학번 동기들은 이렇게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물론 남북한 두 정상도 합격의 영예를 얻고 4년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졸업을 했지만.....

우리 동기중에는 약 10여명 정도가 약학의 꿈을 접고 타 학문을 향해 사라졌고, 국민의 건강과 수관이 되겠다고 불굴의 집념으로 약학을 전공했지만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들의 곁을 떠나간故 신혜자,故 전유호,故 한관성,故 김기원 친구들이 더욱 그립다.

사회를 맡기 위해 멀리 일본에서 날라온 천세영, 학생회장을 했던 이진우 부회장, 삼진제약의 차기 대권주자 김정일동기, 동기회장 사모님 윤기숙, 천안의

갑부 이장무와 김영희 부부동기, 사은회 회비를 맨 먼저 낸 최경숙, 대전의 이민숙과 생명공학연구소에서 열심히 연구하는 이기영, 방학동에서 약국하는 조순연, 제주에서 2월에 서울로 올라온 정은주, 가락동에서 약국하는 김연하, 같은 분당에서 동고동락하는 손은실과 배영숙, 이름 잘못 불러 실수한 강현주, 조용히 웃다 간 최정진, 노래 멋있게 불렀던 강인경, 김미영 교수님과 이름 같은 큰 김미영, 서초동에서 잘 살고 있는 박소진과 어은주, 약대에 가장 예뻐했던 마경선, 알미운 80학번 선배에 나란히 시집

간 장부자와 박복자, 서양적인 미모를 자랑하는이혜나, 정성시합때 화상입고기미와 주금깨 없어진 우리 동기의 마스코트 백영주, 은평구에서 고군분투하는 오영자등의 여자동기와 인천에서 동기 모임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대부 고석일 부회장, 식약청에서 동고동락하다 개업한 최병원, 교련시간에 중대장한 김상훈, 천안과 수원에서 고군분투하는 강성철과 강승익, 멀리 대구와 밀양에서 왕립한 전두환과 박종진, 서울에 몇 없는 동기 정의차, 홍성광, 허웅재, 마라톤에 정신없는 최병태 부회장, 안산에서 개업한 이경덕, 백영주 정성시험 도와주다 같이 화상 입었던 신일균, 제일기린제약에 다니는 김학선이 참석했다. 회비를 내주고도 집안행사 등으로 참석치 못한 김은규, 현의상, 윤미숙, 김향숙, 황인찬, 조덕희, 김난숙, 서정봉, 김성배, 김선진, 김성일, 김용규, 신동근, 이석재, 김현학, 원주현, 강성희동기의 협조로 무사히 마칠수 있었다. 또한 멀리 캐나다로 이민 간 노영석, 박창서 동기, 미국으로 유학 간 권혁도, 김복환, 이영희, 임후강, 황은숙 동기, 여러가지 사정상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한 82학번 동기들에게 아쉬움을 전하면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과 동기들의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박 노 철

(6회, Fashion International IMEX Inc. 대표)

## 잃어버린 마이다스의 꿈, 그러나 신화는 계속된다

- 머리카락과 함께 씨름한 40년

글로벌화된 시대 탓인가 아니면 시절이 하 수상하다 보니 그런가, 요즘이야 한 집 건너 유학이요 두 집 건너 외국으로 이민가거나 하는 일이 전혀 낯설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금 젊은층이야 잘 모르겠지만 이전에도 이민이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한 적이 있었다. 차이라면 그 때는 그야말로 못먹고 못살아서 쫓겨가다시피 가던 세월이었다면 지금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는 우리 사회분위기며 아이들 교육문제 등등을 핑계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미련없이 떠난다는 점일 것이다.

전혀 동일한 시점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때는 말도 안통하고 제대로 된 직업훈련을 받은 입장도 아니어서 한국에서의 지위나 직장과 전혀 무관하게 예컨대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남미 쪽으로 간 분들은 의류장사로, 캐나다로 방향을 정했던 분들은 지령이를 잡아서 파는 일에, 미국의 경우 가발업으로 승부를 건 분들이 많았다고 이야기하던 시절이 있었음을 기억할 것이다.

어린이들도 다 아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중 Midas라는 군주가 있다. 손에 닿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변하게 하는 신비한 능력을 지닌 이 군주는 자신이 다스리는 프리기아라는 소왕국을 온통 번쩍거리는 황금나라

로 바꾸었지만, 그러나 중국에는 모든 것을 잃고 만다는 바로 그 이야기가 현재에도 반복된다고나 할까. 지난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반에 이르는 초기 한인 이민사회에서 '마이다스의 신화'처럼 손만대면 돈을 버는 것으로 알려지며 호경기를 구가했던 가발업은 일확천금의 황재를 꿈꾸며 이 사업에 뛰어들었던 많은 한인들에게 성공과 실패, 희열과 좌절을 골고루 남겨준 채 결국 신화처럼 화려했던 한 시절을 마감했음을 기억하고 있다.

이제는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처럼 한물간 업종으로 치부되고 있지만, 한때 한국의 수출산업을 주도했고 초기 한인 이민사회의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주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던 가발업. 이 업종에 초창기부터 뛰어들어 지금까지 근 40년을 숭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고집스럽게 외길을 지켜 올 수 있었기에 세속적인 성공여부를 떠나 소위 '천부의 가발상'이라는 주변 분들의 과분한 칭송에 낮간지러운 바 아닌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사심없이 털어 놓을 수 있다고 자부한다. 이 작은 성공이 당연히 하늘에서 그저 떨어진 것은 아니었으니까말이다. 전 세계적인 불황의 그림자가 어둡게 드리운 요즘, 비록 본업인 약업과는 거리가 멀지만 가발장사 40년의 경험담은 나를





대로 불확실성의 시대를 어렵게 살아가는 많은 후배들에게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일깨워주는데 아주 작은 도움이 되기를 빈다.

당연히 나의 사회생활의 출발은 약사였다. 지금은 기억도 까마득한 그 때의 이야기는 뛰어넘기로 하자. 그러나 미리 말하건대 나의 오늘날의 성공의 상당한 부분을 약사로서의 '편더멘탈'에 힘입은 바 적지 않음을 고백해야겠다. 궁극적으로 특정한 한가지 약으로 모든 경우의 모든 환자들을 다 치료할 수 없듯이 가발 역시 한가지 모양, 한가지 색깔로 모든 이들을 절대 만족시킬 수 없는 일이다. 실질적으로는 약대에서 배운 향장학이 초기의 어려움을 돌파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지만, 그에 더하여 '개별화된 치료'(individualized therapy)가 현대 치료의 근간이 되듯 가발 역시 그것을 필요로 하는 한사람 한사람에게 꼭맞는 맞춤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속성을 생래적으로 체득한 약사로서의 시각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무튼 3류소설의 도입부처럼 1965년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우연하게 지금은 고인이 된 박인규라는 분과 동업으로 「한국가발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며 가발업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당연히 그 때만 해도 한국에는 제대로 된 기술자가 없어 사방에 수소문하다가 홍콩에서 겨우 조수 정도 수준의 풋내기 기술자를 초빙, 어렵게 가발을 제조하기 시작했으나 이 기술자가 과학적인 연구나 분석도 없이 그저 먼저 직장에서 익힌 경험에만 의존한채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는 바람에 염색, 탈색이 제대로 안된 제품이 부지기수로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대로는 도저히 안되겠다고 생각한 끝에 '궁하면 통한다'고 약대 재학시절 배웠던 향장학의 화학분석법을 비장의 무기로

선택하여 직접 기술개발에 나섰다. 그 때의 고생을 새삼 설명할 의도는 없다. 그야말로 피눈물나는 노력의 결실로 인모 가발중 가장 만들기 어렵다는 60번(백인용 가발중 가장 흰색)을 국내 최초로 제조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사업은 순탄하게 진행은 되었지만 사정에 따라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당시 국내 가발업계에서 손꼽히던 반도상사의 공장장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했으며, 1968년 다시 「동진가발공업주식회사」를 설립, 미국시장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독자적인 사업을 벌이기 시작했다.

1970년 4월 더 큰 성공의 꿈을 안고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힌 사업체의 관리를 부친에게 부탁

실질적으로는 약대에서 배운 향장학이 초기의 어려움을 돌파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지만, 그에 더하여 '개별화된 치료'(individualized therapy)가 현대 치료의 근간이 되듯 가발 역시 그것을 필요로 하는 한사람 한사람에게 꼭맞는 맞춤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속성을 생래적으로 체득한 약사로서의 시각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한 후 집사람과 어린 남매를 데리고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굴(미국)로 들어가기'에 이르렀다. 한동안 부인과 함께 가발 수입과 소매업을 하다가 1975년에 어느 정도 자신을 얻어 드디어 패션 인터내셔널 아이멕스사(Fashion International IMEX Inc.)를 설립,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난 25년동안 '토니 오브 베벌리'(Tony of Beverly)라는 상표로 백인용 가발만을 전문으로 취급해 온 끝에 이제는 동종 업계에서는 나름대로의 브랜드파워를 가질 만큼 성장한 것이 조금은 뿌듯하게 느껴진다. 규모에 비해 탄탄한 매출액을 기록, 미국내 중소기업중 우량 기업의 범주에 들게끔 되었으니까 말이다.

어찌보면 70년대 초반까지 호경기였던 가발업계가 심한 가격 경쟁과 유행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갑자기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한



인가발상으로는 처음으로 백인용 가발을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것이 주효해서 오늘까지 온 것이 나름대로의 성공 비결임을 밝혀야겠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결단이 필요할 때 미래를 내다보고 고독한 결정을 내려야하는 일은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짧은 영어를 갖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바이어들을 열심히 설득하는 한편 상품의 품질과 안정된 공급을 철저히 보장한 결과, 이제는 K 마트를 비롯해 전국 웬만한 지역에 어카운트를 갖게 되었음은 지난 세월 겪었던 어려움을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당연히 지금도 자체 상표인 '토니 오브 베벌리' 가발은 고품질을 인정 받으며 타사 제품보다 고가에 팔리고 있음은 순간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정말로 살아남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고 투쟁 결과임을 한시도 잊을 수 없다. 물론 제품생산이야 이미 다각화시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각국에서 만들어 오지만, 당연하게도 미국 시장의 흐름을 한치의 착오도 없이 간파하고 더 나아가 스타일이나 유행을 선도한다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요즘 세계 어느 나라나 불경기가 화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분야 역시 경기의 영향을 심하게 받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원래 백인용 가발시장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소비자들을 주 고객으로 삼고 있어 경기를 거의 안타는 편이기는 하지만, 지금과 같은 불황이 지속되면서 소비심리가 얼어붙기는 예외일 수 없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동안 주류사회 시장에서 닦은 기반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노력이 헛되지 않아 크게

염려하지는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불경기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한인사회 경제와 관련, 태생적으로 한인들이 영세한 자본과 언어문제 등의 이유로 주로 한인이나 히스패닉, 흑인 고객들을 상대로한 단순한 소매업종에 치중하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벗어나지 못해 불경기의 영향을 더욱 민감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유감스럽게도 맞을 것이다. 많은 뜻있는 분들이 무수하게 지적했듯이 이제는 한인들도 소극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규모가 크던 작던 가급적이면 주류사회 시장을 겨냥하여 과감하게 사업을 벌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다행이라면 주류사회 시장에서는 무엇이든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잘 만들어 내면 잘 팔리게 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양심껏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그렇게 쌓아올린 것이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는 없다는 것이 나의 신조이다. 비록 약사가 아닌 가발업을 천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사

업의 원동력이 약사사회에서 생래적으로 체득한 것임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으며, 무엇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역시 세상을 조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혜안을 가르쳐 준 약학이라는 학문에서 빌려왔음을 떳떳하게 밝히고 싶다. 식상한 말이지만 세상은 넓다. 좁은 시각에 안주하지 말고 어느 분야에서건 도전하는 정신으로 시작한다면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믿으며 글을 마무리한다. 지면을 통해 선후배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지금, 나는 무척 행복하다.





조 중 형  
(18회, 이사)

## 기본에 충실한 것이 성공의 지름길

### - 한 번 더 웃고 한 번 더 말하기

어린이는 하루에 2만번 정도를 웃는다고 한다.  
하지만 어른은 채 20번도 웃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다.  
어린이들이 아프지 않고 씩씩하게 크는 것은 늘 웃음을 짓고 있기 때문이다.  
소문만복래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건강을 챙겨주고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웃음과 따뜻한  
대화 한마디는 그 어떤 노력보다도 약국 경영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확신한다.

약업경기가 어렵다고 한다. 선후배 동료약사들이나 제약회사 도매상 직원들도 이런 말에 동조하고 있다. 문전 약국은 조제수가 인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동네약국은 일반매약의 판매가 부진해서 한숨 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이런 때 일수록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약국에 오는 환자들은 무언가를 기대하고 온다. 처방전을 들고 온 환자라면 복약지도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이때 한마디 말이라도 더 하고 한 번 더 웃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환자는 고마움을 느낀다.

지치고 피곤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오히려 말하지 않고 인상쓰고 있는 모습이 불편해진다.

어린이는 하루에 2만번 정도를 웃는다고 한다. 하지만 어른은 채 20번도 웃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다. 어린이들

이아프지 않고 씩씩하게 크는 것은 늘 웃음을 짓고 있기 때문이다. 소문만복래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건강을 챙겨주고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웃음과 따뜻한 대화 한마디는 그 어떤 노력보다도 약국 경영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확신한다.

환자는 약사를 믿고 상담을 하고 조언을 구한다. 약사는 환자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공부도 하고 매출도 늘리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단순히 애매모호하게 신경성이니 알레르기니 하는 말로 환자들에게 실망을 주지 말고 구체적이고 정확한 설명으로 환자들에게 믿음을 줄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막 졸업한 새내기 약사들은 빨리 약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고 환자에게도 더 상냥하고 더 친절해야 한다. 공부하고 웃는 모습은 약사들이 늘 하는 습관이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큰 무기라는 말이 있듯이 경기가 어려울수록 한번 더 웃어주고 한번 더 친절히 해주면 약국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선후배 동료 약사들의 건투를 빈다.

# 꿈속의 武陵桃源, 張家界

## - 회장단 중국연수를 다녀와서



권혁구  
(9회, 부회장)

3월 2일 봄의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본 동문회에서는 유영후 회장의 임기를 마치면서 회장단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18명의 회원들이 12시 30분에 호북성 성도 "무한"에 도착했다 [인구는 무한(850만), 상해(1,400만), 중경(1,200만), 북경(1,200만), 천진(1,000만)]. 이곳은 옛 춘추 전국시대(춘추 BC 770 - BC 500년 공자가 쓴 역사서(사서오경) / 전국 BC 500 - BC 220년 한나라 유환이 쓴 역사서) 초나라의 영토로 양자강(장강) 중류지방으로 비옥한 2모작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또 1860년 농민봉기운동 태평천국과 1910년 신해혁명의 시발지이기도 하다.

점심식사 후 그 나라의 문화를 보기 위하여 박물관에 들어서 草後之乙의 묘(BC 450년)에서 발굴된 부장품과 도자기, 금, 옥, 종 등 찬란한 전국시대의 유물을 본 후, 유명한 월나라 구천의 동검이 있다고 해서 보려고 했는데 진열이 안되어 보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오월 동주, 와신상담, 빈축(서시)]. 우리는 호남성 성도 "장사"로 이동하기 위하여 관광버스에 올랐다. 중국 남북의 대동맥 북경에서 광주까지 "경주고속도로"가 작

년말 약 5,000km가 개통되었다고 한다. 거의 직선으로 잘 다듬어진 길은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던 그 기억을 남기며 중국의 무궁한 개혁과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가 있었다. 가는 도중 적벽강 휴게소[원나라대 나관중의 삼국지연의 적벽대전에서 조조의 80만 대군을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이 제갈량의 책사에 의한 화공법의 대승을 이룬곳, 중국 역사의 3책사 강태공[삼도육택, 제갈량[공명], 장량[자방]에 잠깐 쉬었다. 장사에 도착, 다시 국내선 항공기로 장가계시를 거쳐 밤 11시 무릉원에 도착했다.

※ 잠깐.. 여기에서 장가계와 무릉도원에 대해 설명해야 독자들의 이해가 쉬울 것 같다. 장가계라는 이름은 당대 유명한 시인겸 소설가인 도연명의 "도원회기"에 유래되었는데, 소설의 내용을 요약하면 어부가 계곡을 따라 배를 저어 올라가다 보니 조그만 협곡사이로 들어가니 기암괴석과 기화요초가 피어있고, 가는 곳마다 복숭아꽃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곳에 산수좋은 선경 정자에 백발노인들이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면서 있기에 어부가 자세히 보니 한고조 유방의 책사 장량을 비롯하여 여러 책사들이 신선이 되어 죽지않고 1,000년이 넘도록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을 보고 그들과 잠시있다가 자기 처자가 있는 곳으로 배를

타고 나와보니 산천은 의구  
한데 아는 사람이 없어 물어  
보니 다 옛날에 죽었다고 한  
다. 신선계에서 잠깐이 인간  
계에서 수백년이 흘렀고 그  
어부는 다시 신선이 있는 곳  
을 찾아 배를 저었으나 그곳  
은 두 번다시 찾을 수 없었다  
는 소설에서 장량이 살고있  
는 곳이라하여 장가계라는  
이름이 붙었고, 우리나라에  
서는 무릉도원으로 더 잘 알  
려졌던 것은 우리나라 선비

들이 중국에 가면 그곳에 다녀오는 것이  
소원이어서 그 이야기가 하도 회자되어  
세종대왕의 4째아들 안평대군[송례문  
현판을 씀]이 꿈속에서 무릉도원이 재현  
되어 그 시대 화가 "안견"을 불러 꿈속의  
그림을 그리게 한 것이 그 유명한 몽유  
도원도[일본 천리대 박물관 보관 (일본  
국보)]가 그려졌고, 또 농가월령가에 '소  
부, 허유 문답하던 곳이 예 아니오' 하는  
고사의 장소가 이곳[소부가 허유한테 요  
임금이 당신이 다음에 왕이 되어야한다  
고 한말에 더러운 이야기를 들었다 하며  
귀를 씻고 신선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무릉도원은  
호남성 서북부 사천성과 경계에 위치하  
며, 그 주위에 산은 거의 해발 1,200~  
1,300m 이고 중국최초의 국가산림공원  
이며, 1992년 유니세프 세계자연유산으  
로 지정되었고, 3개의 풍치지구로 분류  
하여 장가계 풍경구, 삭계육 풍경구, 천  
자산 풍경구가 있는데, 우리는 그중 제  
일 먼저 천자산의 삭도[케이블카]에 몸을  
실었다 그 삭도는 2년전에 건설되었



우리나라에서는 무릉도원으로 더 잘알려졌던 것은  
우리나라 선비들이 중국에 가면 그곳에 다녀오는 것이 소원이어서  
그 이야기가 하도 회자되어 세종대왕의 4째아들 안평대군[송례문 현판을 씀]이 꿈  
속에서 무릉도원이 재현되어 그 시대 화가 "안견"을 불러  
꿈속에 그림을 그리게 한 것이 그 유명한  
몽유도원도[일본 천리대 박물관 보관 (일본 국보)]가 그려졌다.

고, 공사는 홍콩회사가, 케이블기체는  
스위스에서 만들어져 아주 깜찍하게 생  
긴 6인용으로 스키장 곤도라 모양이다.  
오르면서의 경치는 설악의 천불동이나  
금강산의 만물상과는 다른 기동바위 형  
태로 되어있어 감탄사를 날리면서  
1,263m 정상에 올라 산정버스로 40분  
이동하여 원가계[작년말에 등산로 개발]  
에 도착하니 무릉도원의 진수는 이곳이  
고 8,900m 돌기둥군과 기암괴석이 다  
만물상이며, 절벽끝을 굽이굽이 돌아가  
는 등산로와 전망대, 탄성과 환호성으로  
1시간가량 유람을 마쳤다. 매점에서의  
투자족 아가씨들의 "천원에 2개", "싸  
요...싸" 하는 말을 남기면서 천자산에  
다시 돌아와 하룡동상과 선녀산화, 어필



봉[돌기둥 봉우리 위에 소나무가 자라  
붓모양]을 보며 하산하여 2번째 장가계  
풍경구의 황성채, 요자한, 비파계, 금편  
계에 도착하여 금편암에서 사진 한장을  
남겼고, 3번째 삭체육 풍경구에 도착하  
여 십리화랑을 모노레일을 타고 4km 운  
항하며 원앙계 서해를 유인물로 대체하  
고[앞에서 본 모양과 다 비슷하므로] 다  
음의 유명한 황룡동굴은 삭계곡 북단 7  
km 떨어진 곳으로 1983년 발견된 중국  
10대 용암동굴로 중화 최대의 아름다운  
저택[중국의 국보] 종유석중 定海神針  
[정해신침은 높이 27m로 1억원 보험가  
입 되어있다.

마지막으로 선경의 크라이막스를 보  
봉호 유람선에서 수경, 풍경을 보며 우  
리는 영원히 죽지않는 신선이 되었다.

돌아오는 길에 다시 "장사"에 도착하  
여 1972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대사건 "마황퇴한묘"의 발견으로 2000  
년전의 미이라[전한초기 BC185년], 이  
집트의 파라오들의 미이라와는 전혀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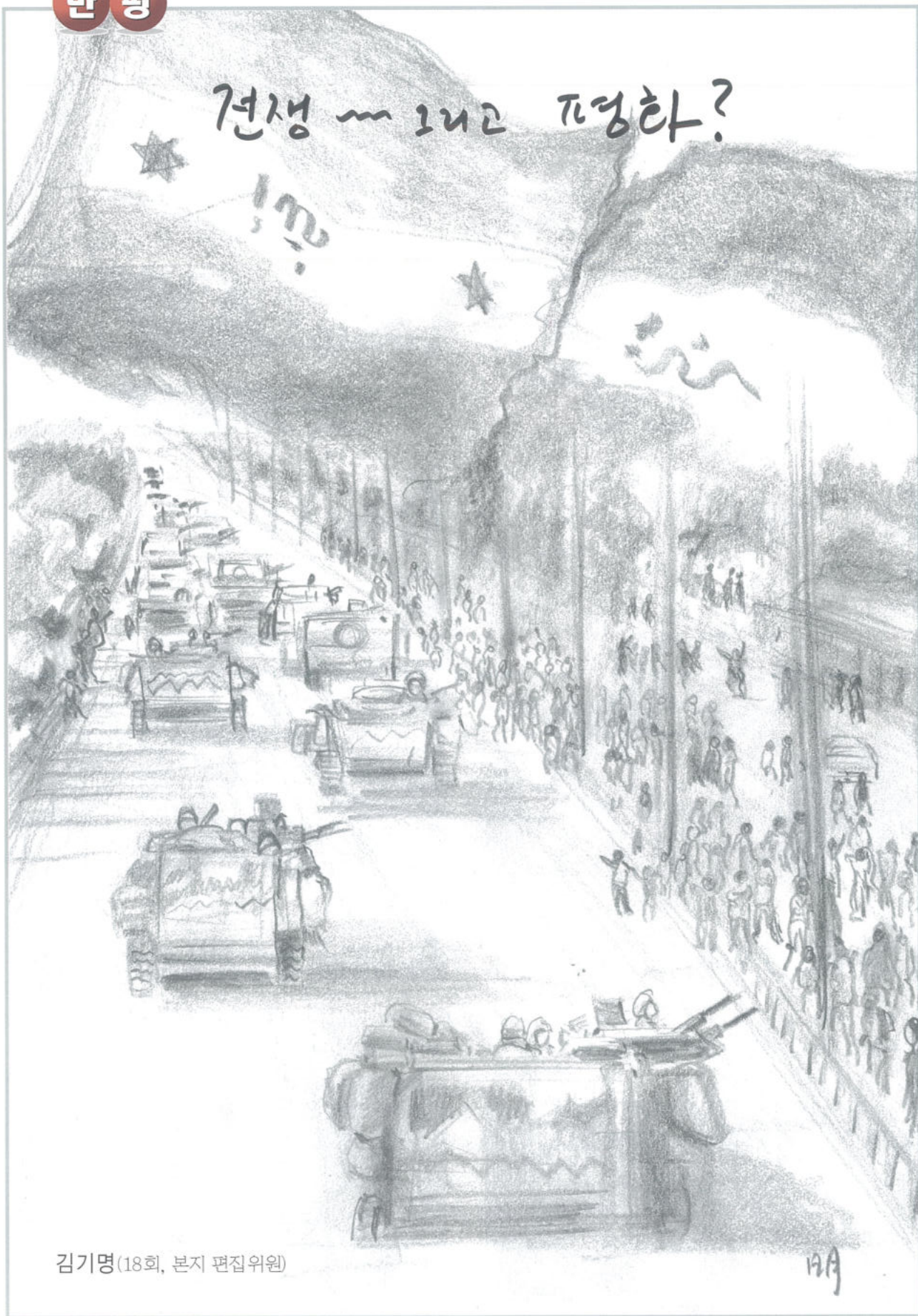
른 인간원형 그대로 피부  
는 살아있는 듯하고, 지  
문도 그대로, 위속에는  
참외씨가 165개가 나오  
고 그의 부장품이 그대로  
보관되었는 타임캡슐...  
그래서 호남성의 자부심  
과 자랑으로 박물관이 새  
로 만들어지고 경비가 삼  
엄하게 이룬 곳을 견학하  
고 [한나라때 장사제 후국  
재상 이초의 부인의 묘]  
약록서원을 거쳐 다시 무  
한으로 나와 황학루와 동

호에 들러 춘추전국시대 우국시인 굴원  
의 동상 앞에서 옛 굴원이 전국말기 초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귀곡  
선생의 제자 소진과 장의의 합종연행책  
과 간신, 근상, 자란 때문에 초나라 회왕  
은 진나라에 잡혀가 죽게되고, 회왕은  
죽기 전에 굴원의 말만 들었어도 나라  
가 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굴원은 나라  
의 패망에 통탄하여 가슴에 돌을 달고  
맥락수에 몸을 던졌고, 그것을 본 시민  
들이 고기밥이 되지말라고 송편을 그 강  
물에 던졌다는 고사[5월 5일 단오날]에  
의하여 지금도 단오날에 송편을 강물에  
던지는 습관이 내려온대[중국의 3대 호  
수 항주의 서호, 장춘의 남호, 무한의 동  
호이며, 가장 큰 호수는 무한의 동정호].

우리 회장단은 거의 신선이 되어 인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회기의 회장  
단이 새로운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  
회를 더욱 활기차게 이끌어 갈 것을 기  
대하면서!!!

만 평

견생 ~ 그리고 평화?



김기명(18회, 본지 편집위원)

## 서초구 지부모임

- ▶ 일시 : 2월 8일(토요일) 오후 6시 호정
- ▶ 임원선출 : 신입회장 최창엽(13회)



## 10회동기회모임

- ▶ 일시 : 3월 8일 안동장
- ▶ 회장 : 박호일(10회)



## 강남지부모임

- ▶ 일시 : 3월 1일
- ▶ 회장 : 윤대봉(14회)



## 안양시 지부모임

- ▶ 일시 : 2월 20일(목요일) 오후 10시 유락정
- ▶ 회장 : 이극선(20회)



## 대한약사회 약사금탑 시상식

- ▶ 일시 : 2월 18일 대한약사회
- ▶ 수상 : 약사금지탑 : 김구(12회), 최창엽(13회)  
공로패 : 안인혁(6회)



## 약업신문 제정 동암상 시상식

- ▶ 일시 : 3월 27일 오후 6시 30분 롯데호텔 2층
- ▶ 약학부분 : 김창중(11회) 교수 수상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졸업식

- ▶ 일시 : 2월 20일 오전 11시
- ▶ 장소 : 중앙대학교 대학원 건물



## 장학금 수여식

3월 20일 모교 교수세미나실



### 약학대학 동문회 장학금 수혜자

장학금명	장학금액	학년	수혜자명	평점
본 동 문 회 (7,000,000)	700,000	약학2	김 지 연	3.95
	700,000	제약2	신 설 희	3.92
	700,000	약학3	한 지 은	4.15
	700,000	제약3	오 윤 선	4.00
	700,000	약학4	엄 선 영	3.82
	700,000	제약4	박 은 정	3.95
	700,000	약학2	고 효 상	3.85
	700,000	제약2	이 성 빈	3.92
	700,000	약학3	조 정 임	4.00
	700,000	제약3	김 주 영	3.97
영등포동문회 (1,500,000)	500,000	제약2	이 아 름	3.92
	500,000	약학4	이 형 복	3.59
	500,000	약학3	송 명 우	3.76
부 산 동 문 회 (1,000,000)	500,000	약학2	장 하 나	3.86
	500,000	제약4	차 자 연	3.21
여 자 동 문 회 (1,000,000)	500,000	약학4	정 유 미	3.77
	500,000	제약4	구 혜 민	3.95
ROTC동문회 (1,000,000)	1,000,000	제약4	박 철 환	3.05
한미약품(주) (3,184,000)	약학대학 발전연구 지원금			
<b>합 계 ; 14,684,000</b>				

» 명부 오타 정정합니다 «

이택성(2회)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827-6(○) = (마두동 826-7(×))

### 행 사

#### 30회 입학 20주년 사은의 밤

- ▶ 일시 : 4월 20일 메리어트호텔 미팅룸
- ▶ 회장 : 김광식(30회), 동기회기금 3백만원

### 결 혼

- 신영식(4회) 이사 2003. 3. 1 자녀결혼
- 이성우(12회) 동문 2003. 3. 6 자녀결혼

### 부 음

- 이해석(5회) 이사 2003. 3. 18 별세
- 김양원(21회) 동문 2003. 3. 21 별세
- 이규식(14회) 부회장 2003. 4. 7 별세
- 김동렬(6회) 이사 2003. 4. 15 부친상

####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해석(5회)이사



이규식(14회)이사

# 6000 동문들의 Vision, 신축 약학관 조감도



## 주요시설 개요

- ▶ 학부 강의실 : 7실(대형 4실, 중형 3실)
- ▶ 대학원강의실 : 3실(소형강의실)
- ▶ 대형강의실 : 1실(계단식 강의실, 240명 수용)
- ▶ 실험실습실 : 9실(준비실 부속설치)
- ▶ 교수실 : 30실
- ▶ 실험연구실 : 15실
- ▶ 종합세미나실 : 1실(40명 원탁회의)
- ▶ 소형세미나실 : 5실(층별 분산배치)
- ▶ 도서실 : 200명 수용(자료실 별도)
- ▶ 학장실, 대학원장실, 행정실 및 교강사휴게실
- ▶ 학생자치공간 및 학생휴게공간
- ▶ 중앙기기실, 동물사육실, 방사성동위원소실 및 각종 부속시설

## 계획규모

- ▶ 연면적 : 3,005평
- ▶ 층수 : 지하 1층, 지상 10층
- ▶ 층별면적 : 지하층(398평), 1층(250평), 2층(303평), 3층(397평), 4층(321평), 5층(298평), 6층(304평), 7층(203평), 8층(203평), 9층(203평), 10층(125평)

**모교 약학대학이 명문사학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있다.  
구조개편에 이은 대폭적인 교수충원, 약학관 신축계획 수립 등  
"약대 발전 종합 마스터플랜"의 기틀을 확립하였다.**

모교 약학대학은 작년 3월부터 거의 1년여에 걸쳐 추진해온 구조개편을 확정하고, 향후 교수충원 계획 및 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국내 최고의 명문 사학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해 전 교수가 새로운 각오로 도전하고 있다. 또한 "세계속에 일류대학으로 우뚝 선다"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발전기금 조성사업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약학관 신축에 관한 구체적인 설계작업에 돌입하였다.

특히 금년에 개교 50주년을 맞이하여 올 후반기에 "약학대학 50년사"를 발간하기 위해 편찬 작업도 활기를 띄고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개교 50주년 기념 국제 학술행사를 비롯하여 약사(藥事)제도에 관한 심포지엄 및 동문초청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구조개편 및 교수 충원**

**〈교수 충원 계획〉**

1. 금년도에 총 5명의 신입교원을 초빙 공고
  - 1학기 공고(2003년 9월 채용) : 생체분석학, 세포분자면역학 각 1명

- 2학기 공고(2004년 3월 채용) : 제제설계학, 식물바이오테크놀로지, 분자약리학 각 1명
2. 2004-2006학년도에도 매년 2-3명씩 신입교원을 지속적으로 충원 예정
    - 초빙예정 세부전공 : 프로테오믹스(독성학), 생명공학, 약물디자인(대사화학), 생물물리약학, 임상약학, 사회약학 등

**개교 50주년 기념 행사**

- ◎ 약학대학 개교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 2003년 10월 9일 (목) 9:30 - 17:30
- ◎ 약학대학 개교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 2003년 10월 10일 (금) 오후 1:30-5:30
- ◎ 약학대학 개교 50주년 기념식 및 동문 초청의 밤
  - 2003년 10월 10일 (금) 오후 6시-9시
- ◎ 약학대학 개교 50주년 기념 동문 체육대회
  - 2003년 10월 12일 (일) 9시-17시
- ◎ '중약 50년사' 발간 사업
  - 2003년 하반기에 발간, 전 동문에게 배포 예정

**〈구조개편〉**

**12개 전공교실**

- |           |          |
|-----------|----------|
| △생화학교실    | △유기제약교실  |
| △약리학교실    | △면역학교실   |
| △병태생리학교실  | △위생약학교실  |
| △약품분석교실   | △약용식물학교실 |
| △미생물학교실   | △생약학교실   |
| △약품물리화학교실 | △약제학교실   |

학문추세에 따른 탄력적 대응 불가능, 교수확보를 저조, 연구활성화 미진, 비합리적인 교과과정 운영

**약학대학  
구조개편**  
교육의 내실화  
연구의 활성화

**5개 DIVISION**

- 생명약학부
- 약리·병태생리학부
- 미생물·예방약학부
- 천연물·의약화학부
- 약제과학부

새로운 학문분야의 교수충원 용이, 공동연구 시스템의 강화, 선도적인 교육 및 학사제도 도입

# 발전기금 조성 내역

총 11억 7백 만원 (2003.4.25 현재)

## ◆ 교 수 : 총 11,200만원

최영욱(1,000), 임철부(1,000)  
 염정록(700), 김창중(500), 김미영(500),  
 이도익(500), 이민원(500), 임채욱(500),  
 김대경(500), 황완균(500), 김하형(500),  
 김홍진(500), 심상수(500), 손의동(500),  
 천영진(500), 손동헌(500), 이광표(500),  
 홍순각(500), 김기호(500), 허인회(500)

## ◆ 학 생 : 총 5,350만원

## ◆ 동문회장단 : 총 13,300만원

유영후(1,000), 정재일(500), 이기안(500),  
 박숙자(500), 조의환(1,000), 김연희(500),  
 이규진(500), 박호일(500), 유정사(500),  
 정덕호(500), 황공용(500), 황문상(500),  
 강옥희(500), 서국진(500), 윤대봉(500),  
 박석동(500), 정명진(500), 김경오(500),  
 김현태(500), 김종성(400), 김승태(400),  
 김수배(300), 이호섭(300), 박계환(300),  
 이경옥(300), 김영식(300), 임상목(500)

## ◆ 단체 기부 : 총 900만원

- 중삼친목회(300)
- 91학번 친목회(이용준 외, 300)
- 미생실험반 동문회(300)

## ◆ 개인 · 부부 동문 : 총 79,950만원

## ◆ 기수별 통계 (단위 : 만원)

- 1회 : 손동헌(500), 이광표(500), 홍흥만(300)  
 2회 : 고두흔(박명자 부부, 600), 서화택(500), 홍순각(500)  
 3회 : 김석자(300), 한만우(1,000)  
 4회 : 김기호(500), 허인회(500)  
 5회 : 박명자(고두흔 부부, 600), 이송학(300)  
 이해석 · 강태일 부부(1,000)

- 6회 : 김경희(300), 김종구(300), 박정배(300), 신정숙(300),  
 안병한(300), 유상열(300), 이준장(100), 임철부(1,000),  
 추의호(300), 홍병석(300)  
 7회 : 강승안(500), 김영일(300), 김정부(300), 김정재(300),  
 박명신(300), 박숙자(500), 박옥규(300), 유영후(1,000),  
 유운자(300), 이기안(노신희 부부, 500), 이능세(300),  
 이양현(500), 인고길(300), 임종홍(300), 정재일(500),  
 한철희(300)  
 8회 : 김연희(500), 김형이(500), 문옥자(300), 박찬수(300),  
 임상목(500), 조의환(1,000), 한석원(500)  
 9회 : 김영부(500), 노신희(이기안 부부, 500), 서황석(500),  
 이규진(500), 이근배(100)  
 10회 : 김삼균(300), 박호일(500), 방순환(12,000), 서정목(300),  
 유정사(500), 이대윤(300), 이양원(300), 장영조(300),  
 정송수(300), 정수길(300), 조규동(300)  
 11회 : 김창중(500), 민대식(300), 박찬희(300), 이철규(50),  
 정덕호(500), 최옥출(100), 황공용(500), 황문상(500)  
 12회 : 강옥희(500), 김 구(500), 노덕재(300), 박영찬(1,000),  
 염윤기(300), 이성우(500), 이정희(300), 이호섭(300)  
 13회 : 김신미(10), 김종성(400), 박동규(300), 서국진(500),  
 문재빈 · 김애련 부부(500), 안병식(1,000), 윤창현(300),  
 이종각(박종애 부부, 500), 조성복(홍순경 부부, 500),  
 조중목(300)  
 14회 : 김명용(1,000), 김종열(500), 윤대봉(500), 정도연(1,000),  
 정진모(300)  
 15회 : 김승태(400), 김용의(300), 박석동(500), 안민철(300),  
 이인석(300), 임영식(300)  
 16회 : 강명채(500), 김광식(300), 김선기(300), 윤영로(200),  
 박종애(이종각 부부, 500), 홍순경(조성복 부부, 500),  
 조기현(300), 한인희(300)  
 17회 : 신상직(500), 양희익(300), 최해광(300)  
 18회 : 강응모(성낙순 부부, 500), 김기명(300), 김청길(300),  
 박계환(300), 정명진(500)  
 19회 : 권영훈(300), 권창호(300), 김경오(500), 박효식(300),  
 이경옥(300), 이창욱(300)  
 20회 : 김영섭(300), 김현태(500), 박기배(300), 오상동(300),  
 유영내(300), 윤춘수(300), 이극선(300), 이신규(300),  
 임구래(300), 임경원(이현숙 부부, 1,000), 정영수(300),  
 정찬현(400), 최운환(300)  
 21회 : 김대일(300), 김병무(300), 김수배(300), 박전희(100),  
 어경남(300), 이규섭(300), 이세진(500)  
 22회 : 김홍진(500), 정진호 · 강명희 부부(500), 손의동(500),  
 유대식(300), 이상돈(100)  
 23회 : 강호영(100), 공인호(300), 권석형(500), 김영식(300),  
 박종화(1,000), 박희용(100), 양재업(100), 이도익(500),

- 이승하(300), 이원길(300), 이정대(100), 임상규(300), 정덕기(300)
- 24회 : 김관식(500), 김승재(김희식 부부, 500), 윤규형(500), 이광섭(300), 이규삼(100), 이범도(300), 임무호(500), 최영옥(1,000), 최재윤(김윤경 부부, 500), 함삼균(50), 홍용기(300), 황규진(300)
- 25회 : 고성권(300), 김영식(300), 김춘규(100), 김희섭(300), 성낙순(강응모 부부, 500), 위성건(500), 이내홍(300), 이민원(500), 이재희(김은진 부부, 500), 이현수(300), 조순현(300), 최두주(300)
- 26회 : 김안식(300), 김영후(300), 라종우(300), 문형철(300), 박재길·오옥희 부부(500), 심상수(500), 정태형(300), 이창훈(이숙희 부부, 500), 진희역(300), 최민규(300), 황완균(500)
- 27회 : 안산 79학번 동기회(김덕진, 오순용, 오흥설, 이상필, 이창오, 이현수, 한봉길 각각 300씩 총 2,100), 박수길·이정아 부부(500), 박영달(300), 방만성(조순연 부부, 500), 양건모(300), 이선애(100), 최기선(300), 현기원(300)
- 28회 : 김영희(300), 김윤경(최재윤 부부, 500), 김유근(500), 김희식(김승재 부부, 500), 이숙희(이창훈 부부, 500),

- 양덕숙(300), 임채욱(500)
- 29회 : 강대용(300), 강철선(300), 김영자(300), 서경원(300), 김은진(이재희 부부, 500), 손병로(300), 안성진(300), 유인석(300), 이종민(300), 이 준(300), 이 철(300), 정진호(300)
- 30회 : 김광식·윤기숙 부부(500), 김미영(300), 박복자(300), 서봉호(100), 신일균(300), 이인재(300), 장부자(300), 조순연(방만성 부부, 500), 조덕희(300), 천세영(300)
- 31회 : 김하형(500), 김진홍(300), 박건규(500), 이현숙(임경원 부부, 1,000)
- 32회 : 고은미(300), 채영주(300)
- 33회 : 박재훈(240)
- 34회 : 민성철(300), 이선우(300)
- 35회 : 권준한(300)
- 36회 : 방극상(50), 안영윤(300), 임성호(300)
- 37회 : 오상희(100)
- 38회 : 박웅석(300)
- 40회 : 한국약품(이병두, 300)
- 43회 : 김종호(100), 신명숙(300)



개국·비개국회원별 통계 (단위: 만원)

♣ 개국회원

1. 강남지부 : 총 14명 (15,900)
2. 강동지부 : 총 12명 (3,500)
3. 강북,도봉지부 : 총 1명 (500)
4. 강서,양천지부 : 총 11명 (3,300)
5. 관악지부 : 총 6명 (2,000)
6. 광진,성동지부 : 총 2명 (600)
7. 구로,금천지부 : 총 10명 (3,000)
8. 노원지부 : 총 2명 (500)
9. 동대문지부 : 총 3명 (1,100)
10. 동작지부 : 총 6명 (1,700)
11. 마포지부 : 총 1명 (300)
12. 서대문지부 : 총 4명 (1,600)
13. 서초지부 : 총 9명 (2,300)
14. 성북지부 : 총 1명 (400)
15. 송파지부 : 총 6명 (2,400)

16. 영등포지부 : 총 2명 (800)
17. 용산지부 : 총 2명 (400)
18. 은평지부 : 총 1명 (500)
19. 종로지부 : 총 2명 (1,000)
20. 중구지부 : 총 2명 (1,300)
21. 중랑지부 : 총 2명 (600)
22. 대전지부 : 총 1명 (300)
23. 인천지부 : 총 4명 (1,900)
24. 강원지부 : 총 1명 (300)
25. 고양지부 : 총 7명 (1,050)
26. 광명지부 : 총 15명 (5,340)
27. 부천지부 : 총 4명 (1,300)
28. 성남지부 : 총 2명 (800)
29. 수원지부 : 총 14명 (4,800)
30. 안산지부 : 총 15명 (4,300)
31. 안양지부 : 총 17명 (4,750)

32. 파주지부 : 총 1명 (300)
33. 평택지부 : 총 9명 (2,600)
34. 천안지부 : 총 2명 (400)
35. 미주지부 : 총 1명 (500)
36. 지부외 : 총 11명 (3,300)

개국회원 합계 : 총 203명  
(7억5천6백4십만원)

♣ 비개국회원

1. 학계 : 총 22명 (11,800)
2. 병원 : 총 4명 (1,200)
3. 제약계 및 기업 : 총 26명 (12,700)
4. 기타 : 총 14명 (9,360)

비개국회원 합계 : 총 66명  
(3억5천6십만원)

동문회비  
납부자

- 이사회비 : 김석자(3회), 박노일(4회), 김승재(24회)  
 일반회비 : 박필일(2회), 최영자(8회), 배희영(9회), 구종모(14회), 이신규(20회), 양희복(22회), 강호영(23회), 전금용(28회), 현영숙(31회), 박재홍(32회), 육재분(32회)



편집자

요즈음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나 SARS(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공포로 점차 분위기가 경직되어 가고 있다. 태초 이후 인류를 위협한 질병이 페스트, 콜레라 등 한둘이 아니지만 역시 현실로 닥친 위기에는 어떤 인간도 약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必死即生, 必生即死라고 하지 않았던가? 위기는 거꾸로 또 하나의 기회였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이번의 SARS도 역시 평범한 SARS(Simple Agreeable Respiratory Syndrome)로 바뀔 날을 기대한다. 그야말로 盡人事待天命的 자세로 살자!

황 공 용 (11회, 부회장/편집위원장)

徐

열두권째의 동문회보 원고에 마침표를 찍는 감회가 새롭다. 신임 회장단 출범과 함께 새로운 향해를 시작한 동문회보가 한번의 거름도 없이 순항할 수 있었음은 순전히 한사람 한사람 동문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이루어진 것임을 기쁘고도 고맙게 회고한다.

明

어느날 퇴근하기 위해 밤 10시쯤 약국문을 닫는 순간 담벼락 위로 튀어 오르는 고양이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고양이는 뺨히 나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웬지 경계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어둠속에서 침묵이 흐른 후 고양이와 대화를 나누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깜짝 놀랐잖아. 너 뺨히 왜 쳐다보냐?”

고양이는 살며시 입을 벌리며 “아옹” 대답했습니다.

“아저씨가 매일 내밥 주었나요?”

“그래, 네가 보지 않을 때 찌꺼기 밥을 놓았는데 어떻게 내가 니 밥을 준지 아냐? 과연 니가 영물(靈物)이구나?”

“아저씨! 제발 식사 좀 잘하슈... 나 영양실조 걸리면 아저씨가 책임 질꺼예요?”

庸

뒤늦게 철들어서가 아니라 헬스클럽에 강제로 등록시키겠다는 집사람의 협박공갈을 피해 주말 등산을 시작하다. 작은 산이지만 등산로 초입의 진달래가 지더니 정상 of 진달래가 피고, 비 한 번 오더니 앙상한 가지 사이로 속살을 보이던 등성이가 순식간에 새 손으로 덮여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다. 무릇 시간의 흐름이 이야기해 주는 이치를 책에서가 아니라 생활에서 맛오는 오묘한 즐거움!

洙

전 세계가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공포에 떨고있다. 현재 치료법은 환자를 격리시킨 상태에서 증세에 따라 대처하는 대증요법이 전부라 하니 특별한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한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되기까지 5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 이라크 전쟁 공포에 이은 이 괴질병 확산으로 인한 여러 방면 미치는 파급 효과는 엄청나다. 정말 이 세상은 한시도 우리에게 편안한 생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 같다.

〈 편집위원장 〉

황 공 용(11회)

〈 편집위원 〉

서 국 진(13회)

김 기 명(18회)

박 희 용(23회)

김 정 수(26회)

동문여러분의  
욕고를 모집합니다

동문회 및 회원들의 활동과 관계된 것이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내용이나 환영합니다.

가급적 관계되는 사진을 첨부하시면 더욱 알찬 구성이 될 것입니다.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바랍니다.

〈접수〉 동문회보 편집실 전화:(02)565-1700 팩스:(02)564-1701 E-mail:capa21@hananet.net



# 한국인의 두통약 게보린®

역시 두통약은 게보린!



**【효능·효과】**

두통, 치통, 발치후 동통, 인후통, 귀  
의통증, 관절통, 근육통, 신경통, 건통,  
타박통, 골절통, 염좌통,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오한, 발열시의 해열

문의처 : (02) 338-5511(마케팅부 판촉과)



**삼진제약주식회사**

<http://www.samjinpharm.co.kr>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8번지

(테헤란오피스빌딩 1309호)

전화: (02) 565-1700 팩스: (02) 564-1701

E-mail: capa21@hananet.net